

오쿠이즈모의 일본도 장인, 고바야시 가문의 역사

오쿠이즈모에서 일본도 장인을 배출해온 고바야시 가문은 다타라 제철소의 오카지바(질이 낮은 철을 정련하여 판자 모양의 철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대장장이로 일했던 고바야시 사이베(1822년 사망)를 조상으로 두고 있는 가문입니다. 일본이 1860년대부터 서양 기술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철 수요가 급증하자, 손자인 고바야시 마쓰자에몬(1846년 출생)이 독립하면서 제철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다타라 제철은 수입된 새로운 반사로와 경쟁에 고전을 면치 못했고, 마쓰자에몬의 제철소는 곧장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마쓰자에몬의 손자인 고바야시 다이시로(1903~1976)는 가문에서 최초로 일본도 장인으로서 수행을 쌓았습니다. 히로시마현에서 수학한 후, 1942년에 오쿠이즈모로 돌아와 서양식 군사용 칼을 제조하는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도검 제조가 금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금지령이 개정되면서 미술품으로서의 도검 제작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다이시로는 1954년에 도검 제작의 허가를 얻고 교토의 갓산 사다카즈(1907~1995)에게 사사했습니다. 갓산 사다카즈는 나중에 인간国宝로 지정되는 매우 훌륭한 일본도 장인입니다. 다이시로 자신 또한 유명한 일본도 장인이 되면서, 1965년에는 일본미술도검보존협회의 제1회 작품전에 자신이 만든 칼이 전시되었습니다. 다이시로의 세 아들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쿠이즈모를 대표하는 일본도 장인이 되었습니다.